

대학생의 타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과 자신의 성 전형화*

양혜영[†]

김경미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

본 연구는 대학생의 타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과 자신의 성 전형화, 그리고 그 둘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남학생 165명, 공학여대생 292명, 여자 대학의 여대생 125명 총 582명의 대학생에게 실시한 타인과 자신 척도는 두 개의 문항 유형인 남성형, 여성형과 세 개의 영역인 직업, 활동, 특성에 대한 문항들을 담고 있었다. 타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에서 여학생(공학여대생과 여대생)이 남학생보다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성 전형화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 전형화된 반응을 보였다. 타인척도와 자신척도 간의 관계를 보면 여학생 집단에서 성 도식의 유연성의 증거가 나타났다. 남성적 직업과 활동에서 보다 평등적 태도를 보이는 공학여대생은 남성적 문항에 대한 자기 승인이 높았다. 남성적 직업, 활동, 혹은 특성에서 평등적 태도를 보이는 여학생은 여성적 문항에 대한 자기 승인이 낮았다. 타인과 자신의 문항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세 집단에서 동일한 세 개의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문항의 내용에 상관없이 타인에 대한 성 태도를 묻는 문항들은 하나의 단일한 요인을 구성하고, 자신의 성 전형화를 묻는 문항들은 여성형 문항들과 남성형 문항들이 각각 다른 요인을 구성하였다. 즉 타인에 대한 성 도식보다 자신의 성 도식이 보다 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성 고정관념, 성 전형화, 성 역할, 성 도식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육성과제(KRF-2003-074-HM0001)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양혜영, 경북 경산시 대동214-1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

E-mail : geminus@korea.com

인간은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태어나지만 또한 남성 혹은 여성으로 길러진다. 사회가 원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성장하기 위해 각 성별에 적합한 가치, 태도, 행동, 특성 등을 배워나간다. 이렇게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을 특징짓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흔히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각 개인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양측으로 하는 연속선상에서 어느 지점에나 있으며 그것이 그 개인의 성분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전통적으로 남성은 남성성을, 여성은 여성성을 많이 소유할수록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Bem(1974)은 성 분화 개념의 양극성 가정에 의문을 던지며 남성성과 여성성이 하나의 요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분리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인 관점처럼 남성은 남성성을, 여성은 여성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성과 행동을 모두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Bem은 각 개인이 소유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여 개인의 성 전형화 정도를 알 수 있는 Bem Sex-Role Inventory(BSRI)를 제작하였다(1974, 1981). 그 후로 BSRI는 성 역할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지만 그에 따른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김혜래, 2003; Hoffman & Borders, 2001; Lenney, 1991).

성 전형화 혹은 성 도식화된 정도를 측정한다는 BSRI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다. Bem은 BSRI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두 요인을 측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후속 연구들은 한정된 성격 특성을 담고 있는 BSRI가 남성성의 한 측면인 도구성을, 여성성의 한 측면인 표현성을 측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BSRI의 문항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Bem의 주장과는 달

리 도구성과 표현성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나타났다(Hoffman & Borders, 2001; Spence, 1993; Spence & Sharon, 1996). Spence는 자신이 제작한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PAQ)와 BSRI 모두 도구성과 표현성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 전형화라든가 성 도식 같은 포괄적 성 개념을 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도구적 특성과 표현적 특성은 성 개념의 한 요인일 뿐이기 때문이다(Spence, 1993; Spence & Helmreich, 1972; Spence & Sharon, 1996).

지난 20년 동안 주요한 변화는 성 도식이 단일체이기 보다 다차원적인 구성이라는 인식이 커진 것이다(Deaux, 1999; Huston, 1983; Ruble & Martin, 1998; Signorella, Bigler & Liben, 1993; Spence, 1993; Spence & Sharon, 1996). 학자들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태도, 행동, 신념, 선호도 등이 하나 혹은 두 개의 영역에서 나올 수 없다고 보았다. 영역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 개인이 성 전형화를 어느 정도 하느냐는 상당히 다르다. 성 도식은 보다 여러 개의 요인들로, 차원들로 구성된 복잡한 개념으로 여기서 다양성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Deaux, 1999; Huston, 1983; Ruble & Martin, 1998; Signorella, 1999).

성 도식이 다중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도식을 구성하는 가능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Martin과 Halverson(1981)은 아동은 성에 따라 정보를 유목화하고 조직화하는데, 두 종류의 도식을 형성한다고 했다. 첫째,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내집단/외집단 도식을 형성한다. 이 도식은 남성과 여성을 위한 행동, 특성, 대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둘째, 자신의 성 도식으로 아동 자신의 성에 해당하는 특성과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협소하지만 자세한 도식을 형성한다. 즉, 아동은 성별에 따라 정보를 유목화하고, 남성과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재화하고,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활동에 접근하고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은 회피한다.

아동은 성인, 또래, 혹은 미디어를 통해 무엇이 남아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여아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도식을 획득한다. 예를 들면, 여성은 바느질을 하고 남성은 차를 고친다. 여아는 바느질에 대해 보다 배우고자 원하지만 자동차를 수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남아는 정반대로 자신의 성 도식을 발달시킬 것이다. 여성에게 적합한 바느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남성에게 적합한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자신의 성 도식을 갖는 것이다(Liben & Bigler, 2002).

Signorella(1999)는 성 도식을 다룬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메타분석하며 성 도식의 가능한 다차원적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예를 들면 남성성-여성성, 특성-활동-직업, 자신-타인, 지식-지각, 태도-선호도 등을 성 도식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성 도식의 이런 요인들은 이미 Huston(1983)과 Ruble과 Martin(1998)도 언급한 것으로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구별이라고 하였다. 즉 성 도식에서 타인에 대한 성 태도라는 도식과 자신에 대한 성 전형화라는 도식을 구분하는 것이다. Signorella(1999)는 Bem의 성 도식화에 대한 주장을 검증하려는 시도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BSRI는 자신에 대한 성 도식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기 도식과 관련된 BSRI에서의 수행은 타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Spence(1993)는 대학생의 도구적, 표현적 특성에 대한 지각, 성 역할 태도와 선호도의 관

계를 조사하였지만 의미 있는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BSRI의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두 개의 문항은 대학생의 성 역할 태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ence와 Buckner(2000)는 대학생의 성차별에 대한 신념, 도구적, 표현적 특성에 대한 지각, 성 역할 태도의 관계를 보았지만 역시 서로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 성 역할 태도, 성차별에 대한 신념간의 관계를 보았는데, 여대생의 경우는 어떤 의미 있는 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특성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신념 간에 부분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도구적 특성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크게 지각하는 남학생은 보다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 Harper와 Schoeman(2003)은 타인 지각에서 중요한 사회적 유목으로 성별을 사용하는 사람은 정교한 성 도식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그들 연구에서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타인에 대한 도식을 형성하는 데 성별을 기본적 유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타인 지각에서 성별을 주요한 유목으로 사용하는 정도와 대학생의 도구적, 표현적 특성에 대한 자기 지각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도구적, 표현적 특성에 대한 자기 지각은 타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과도 관련이 없었다. 이런 선행 연구 결과들을 보면 도구성과 표현성을 측정하는 BSRI와 PAQ는 성 도식의 다른 요인들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나아가 성 전형화나 성 도식 같은 포괄적인 성 개념을 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자신과 타인 요인 간의 관계는 성 역할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인데(Martin, 1999), 성 도식의 다른 측정치들 간에 상관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연구들이 성 도식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각 측정치가 성 도식의 다른

요인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iernat & Kobrynawicz, 1999; Liben & Bigler, 2002). 그런 점에서 성 도식을 구성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구성 요인들을 보다 다양하게 포함한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Signorella(1999)는 여러 다른 영역과 차원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 전형화를 평가할 때 자신과 타인 두 요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atz와 Ksanskak(1994)는 요인 분석과 회귀 분석을 통해 자신과 타인 요인과 관련된 변인을 찾아보았다. 그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역할에 대한 유연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 역할과 관련하여 남성성, 여성성, 직업, 여가 활동, 학업 등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문항들을 조사하였다. 반대 성의 활동, 직업 등에 얼마나 흥미를 보이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흥미나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요인 분석 결과 성 역할 유연성은 자신과 관련된 요인과 타인에 관한 요인, 두 요인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을 예측하는 변인들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자신과 관련된 유연성을 예측하는 변인은 연령, 사회적 환경, 성별, 미디어에 나타나는 반대 성에 대한 선호도, 반대 성 성인의 사회화 영향, 인지적 유연성이었다. 그에 반해 타인에 대한 유연성을 예측하는 변인은 연령, 사회적 환경, 성별이었다. 타인보다 자신과 관련된 유연성을 예측하는 다른 변인들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자신 요인이 보다 복잡하고 발달 형태도 조금 다를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 도식의 주요한 두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과 타인 요인 간에 어떤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까. Signorella(1999)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 전형화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 하여 자신과 타인 척도의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비고정관념적(혹은 유연한) 태도는 반대 성 특징과 관련 있었다. 고정관념적 태도가 낮은 여아는 남성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남성적 활동에 보다 참여하지만 여성적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여아는 남성적 직업을 좋아하고 여성적 직업을 싫어했다. 반면 고정관념적 태도가 낮은 남아는 여성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여성적 활동에 보다 참여하고 여성적 직업을 좋아했다. Signorella는 유연성으로 나타나는 태도는 성 도식의 한 요소라고 하면서, 태도의 유연성은 성별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했다.

자신과 타인의 성 전형화 관계의 발달을 설명한 성 역할 발달 이론들을 보면 타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의 발달이 자신의 성 전형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문혜옥, 2000; Liben & Bigler, 2002). 일생동안 이런 방향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의 사회화 과정을 생각한다면 타인에 대한 성 도식이 자신의 성 도식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가정이 그럴 듯 하다. Martin과 Halverson(1981)의 설명에 따르면 성 고정관념은 어떤 대상이나 활동을 회피하거나 접근할지에 영향을 준다. 장난감 트럭을 본 여아는 트럭이 남아를 위한 장난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 도식을 활성화한다. 여아는 트럭을 가지고 놀지 않는다는 여아의 신념은 여아의 개인적 놀이 행동을 형성하고 나아가 여아 자신의 성 전형화된 행동과 정체감을 발달시킨다.

Liben과 Bigler(2002)는 Martin과 Halverson(1981)의 성 도식 모형을 좀더 발전시켜 두 개의 발달 통로를 제시했다. 타인에 대한 성 전형화

와 자신에 대한 성 전형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설명했다. 아동은 단순히 사회가 제공하는 성 고정관념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 도식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나아가 인지적 정보 처리와 발달을 형성한다. 첫 번째 통로는 타인에서 자신으로 가는 방향이다. 타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아동 자신의 행동, 관심을 형성하고 나아가 성 정체감에 영향을 준다. 위의 예처럼 여아가 트럭을 남아의 장난감으로 알고 가지고 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통로는 자신에서 타인으로 가는 방향이다. 아동 자신의 특성과 행동이 타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여기서는 성 도식이 아동의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동 자신의 흥미가 어떤 대상에 접근할지 회피할지 결정한다. 여아는 트럭에 흥미를 느끼면 가지고 놀려고 하고 흥미가 없으면 가지고 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아의 이런 개인적 경험이 여아의 성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Liben 등은 두 통로를 따로 설명했지만 두 통로가 상호간에 배타적이지 않다고 했다. Liben 등은 Martin 등에 비해 성 도식 발달에서 개인 차이를 보다 고려하였다. 그래서 두 통로가 성 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다 작용하는데, 아동에 따라 발달 시기에 따라 그리고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Liben 등은 성 도식의 다차원성에 근거하여 도식의 주요한 두 요인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척도를 따로 제작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Liben 등이 제작한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도식의 다중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성 역할이나 정체감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BSRI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 개념

의 다중 요인설에 근거하여 자신과 타인이라는 요인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도 없다. 본 연구는 타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과 자신에 대한 성 전형화의 관계가 직업, 활동, 특성 영역에서 남녀 대학생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보려고 한다. 나아가 타인-자신, 직업-활동-특성 영역, 남성형-여성형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된 남녀 대학생의 반응에서 성 도식의 구성 요소를 추출하려고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과 지방 종합 대학의 남학생 165명, 공학여대생 292명, 여대생 125명으로 모두 582명이다. 여기서 공학여대생은 남녀 일반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 집단이고, 여대생은 여자 대학의 여학생 집단이다. 공학여대생과 여대생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변량 분석을 먼저 하였는데, 두 집단이 다른 반응 형태를 보여 모든 통계 분석에서 분리된 집단으로 처리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만드는데 Liben과 Bigler (2002)의 연구 절차를 가능하면 따르려고 했다. Liben 등은 일반형과 단축형 설문지를 제작하였는데, 두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Liben et al., 2002) 본 연구는 단축형을 제작하기로 했다. 설문지는 개인의 타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과 자신의 성 전형화를 측정한다. 성 고정관념은 문화나 사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Liben 등의 설문지의 문항

들을 그대로 쓸 수 없었다. 설문지의 문항들을 우리나라 문화에서 전형적으로 남성적인 특징 혹은 여성적인 특징으로 판단하는지 조사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Liben 등은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문항의 고정관념 정도를 조사하여, 직업, 활동, 특성 영역으로 구성된 아동용 설문지와 성인용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형과 단축형 설문지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모든 아동용과 성인용 문항들을 뽑아 예비 검사용 설문지를 만들었다. 예비 검사 설문지는 직업 80 문항, 활동 80문항, 성격 특성 63문항으로 전부 223문항이었다.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240명에게 각 문항을 ‘남성에게만 해당 한다’부터 ‘여성에게만 해당 한다’라는 7점 척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의 평균을 계산하여 Liben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평균이 3.4 미만이면 남성형으로, 4.6이상이면 여성형으로 그 나머지는 중성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 검사 결과와 Liben 등의 예비 검사에서 나온 각 문항에 대한 미국 대학생의 평가, 성인용 단축형 설문지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화적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이라든가 활동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들(이승훈, 1999; 탁진국 1995)을 참조하여 수정하거나 대체하였다. 성격 특성 같은 것은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우리나라 선행 연구들(김혜래, 2003; 주은희, 2003; 최미이, 2000; 최은영, 2001)의 설문지를 참조하여 가장 근접한 것으로 바꾸었다.

타인에 대한 설문지는 성 고정관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태도를 묻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타인에 대한 신념을 묻는 설문지의 선택

지로 ‘남성만’, ‘여성만’, ‘남녀 모두’, 특성의 경우에는 ‘모두 아님’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Liben 등은 연구에서 중요한 반응은 ‘남녀 모두’라는 반응으로 그것은 문화적 성 고정관념에 대한 개인의 신념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영역별로 남성형 문항과 여성형 문항에서 ‘남녀 모두’에 반응한 비율 점수를 구하였다. 이렇게 문항 유형에 따라 추출한 태도 점수는 각 영역에서 개인의 평등한 혹은 유연한 성 태도를 나타낸다.

자신의 성 전형화에 대해 설문지는 직업과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흥미의 정도를(‘전혀 하고 싶지 않다’부터 ‘매우 하고 싶다’), 특성 영역에서는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정도를 4점 척도에서 평가하도록 했다(‘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영역별로 남성형 문항과 여성형 문항에서의 반응 평균을 따로 구하여 점수로 사용하였다.

타인과 자신에 대한 두 설문지에는 같은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Liben 등은 같은 문항 즉 내용을 사용하여 타인과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한 후 그 반응을 비교하면 타인과 자신에 대한 성 전형화의 관계가 더 잘 드러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Liben 등 연구의 단축형처럼 각 영역에서 남성형 10문항, 여성형 10문항, 중성 5문항으로 구성하여 전부 75문항의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자신의 성 전형화 설문지와 타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 설문지 두 부로 전부 15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절차

설문지는 자신에 대한 성 전형화 다음에 타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묻는 순서로 실시하

였다. Liben 등은 고정관념을 묻는 설문지가 먼저 실시될 경우 자신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신에 대한 설문지를 반드시 먼저 실시하기를 요구하였다. 피험자들은 서울과 지방의 종합대학의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이었다. 심리학 관련 과목의 수강자들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은 관계로 수적으로 여학생이 많았다. 3월 말에 설문지를 모두 수거하여 코딩 북에 따라 입력하고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 분석

먼저 설문지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 하위척도의 Cronbach의 α 를 구했다. 타인과 자신에 대한 두 척도에서 각각 하위척도들의 평균과 신뢰도를 계산하고, 상관 분석, 변량 분석,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3(대학생 집단: 남학생, 공학여대생, 여대생) x 3(영역: 직업, 활동, 특성) x 2(문항 유형: 남성형, 여성형) 변량 분석을 하였다. 변량 분석에서 의미 있게 나온 상호작용은 전부 Duncan 분석을 하였다.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에서 추출한 요인들을 확인한 후 자신과 타인 요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추출한 요인들을 넣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신뢰도와 평균

설문지의 하위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남녀 대학생 자료를 모두 합쳐 Cronbach의 α 를 계산하였다. 자신에 대한 하위척도들의 신

뢰도는 .70 ~ .74, 태도에 대한 하위척도들은 그보다 낮은 .64 ~ .66으로 나타났다. 표 1에는 각 하위척도에서 남학생, 공학여대생, 여대생 세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도 제시하였다.

타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

집단, 영역, 문항 유형 모두 주 효과가 나타났다. 평등적 태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공학여대생, 그 다음이 여대생, 남학생의 순이었다, $F(2, 564) = 176.45, p < .001$. 대학생은 특성 영역에서 가장 평등적 태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활동, 직업 영역 순이었다, $F(2, 564) = 523.20, p < .001$. 대학생은 남성형 문항보다 여성형 문항에서 더 평등적 태도를 나타냈다, $F(1, 564) = 929.46, p < .001$.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집단과 영역, 집단과 문항 유형, 영역과 문항 유형의 이원 상호작용이 모두 의미 있게 나왔다. 의미 있게 상호작용이 나온 경우는 모두 Duncan 분석을 하였다. 남성형 문항에서 여학생(공학여대생, 여대생)이 남학생보다 더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여성형 문항에서는 공학여대생, 여대생, 남학생의 순으로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F(2, 456) = 10.75, p < .001$. 직업, 활동, 특성 세 영역에서 모두 남성형 문항보다 여성형 문항에서 더 평등적 태도를 보였는데, 직업과 활동 영역에서 문항 유형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F(2, 456) = 89.23, p < .001$.

집단, 문항 유형, 영역의 삼원상호작용 역시 의미 있게 나왔다, $F(4, 564) = 4.15, p < .01$. 문항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남성형 문항의 경우 직업, 활동, 특성 영역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여성형 문항의 경우 활동과 직업 영역에서 공학여대

표 1.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신뢰도와 평균(표준편차)

	α 계수	남학생 (N = 165)	공학여대생 (N = 292)	여대생 (N = 125)
여성적 직업-태도	.65	.49(.28)	.61(.28)	.55(.32)
여성적 활동-태도	.64	.65(.25)	.77(.22)	.74(.24)
여성적 특성-태도	.66	.64(.26)	.68(.26)	.67(.28)
남성적 직업-태도	.65	.29(.28)	.38(.27)	.38(.30)
남성적 활동-태도	.64	.41(.29)	.56(.31)	.56(.32)
남성적 특성-태도	.66	.52(.31)	.65(.32)	.65(.32)
여성적 직업-자신	.72	1.63(.44)	1.99(.52)	1.79(.41)
여성적 활동-자신	.70	2.32(.50)	2.50(.45)	2.45(.46)
여성적 특성-자신	.70	2.54(.35)	2.65(.37)	2.70(.37)
남성적 직업-자신	.70	2.33(.48)	2.08(.47)	1.95(.48)
남성적 활동-자신	.74	2.81(.52)	2.33(.52)	2.29(.51)
남성적 특성-자신	.71	2.45(.45)	2.30(.43)	2.36(.41)

생이 가장 평등적 태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여대생, 남학생 순이었다. 특성 영역에서는 공학여대생이 남학생보다 더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성 전형화

집단, 영역의 주 효과가 나타났고 문항 유형의 주 효과는 의미 없었다. 집단 별로 보면 남학생의 자기 승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공학여대생, 여대생 순이었다, $F(2, 563) = 21.87, p < .001$. 영역별로 보면 대학생은 특성 영역에서 가장 높은 자기 승인을 보였고, 그 다음이 활동, 직업 영역이었다, $F(2, 563) = 1144.80, p < .001$.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집단과 영역, 집단과 문항 유형, 문항 유형과 영역의 이원

상호작용이 모두 의미 있게 나왔다. 남학생은 남성형 문항에, 여학생은 여성형 문항에 보다 높은 승인을 보였다, $F(2, 563) = 269, p < .001$. 활동 영역에서 문항 유형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고, 직업 영역에서는 여성형 문항보다 남성형 문항에, 특성 영역에서는 남성형보다 여성형 문항에 더 높은 승인을 보였다, $F(2, 563) = 271.87, p < .001$.

집단, 영역, 문항 유형의 삼원상호작용 역시 의미 있게 나왔다, $F(4, 563) = 17.36, p < .001$. 문항 유형으로 보면, 남성형 문항의 경우 남학생은 활동과 특성에서 여학생보다 자기 승인이 높았다. 남학생은 직업에서도 가장 높은 자기 승인을 보였고, 그 다음이 공학여대생, 여대생 순이었다. 여성형 문항의 경우 여학생은 활동과 특성에서 남학생보다 자기 승인이 높았다. 공학여대생은 직업에서 가장

높은 자기 승인을 보였고, 그 다음이 여대생, 남학생 순이었다.

하위척도간의 상관

표 2 하위척도간의 상관표에서 대각선 위는 남학생, 아래는 공학여대생의 상관계수다. 표 3은 여대생 집단의 상관표로, 의미 있게 나온 상관계수들만 제시하였다. 세 집단의 상관표에서 우선 타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묻는 척도들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직업, 활동, 특성의 영역들은 문항 유형에 상관없이 서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남학생, 공학여대생, 여대생 세 집단에서 모두 태도의 하위 척도들 간에 상당히 일관성 있는 반응이 나타났다.

자기 승인을 묻는 척도에서는 타인에 대한 태도만큼 전체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지만 의미

있는 상관들이 나왔다. 여학생 집단보다 남학생 집단에서 높은 상관들이 많았는데, 특히 남성적 직업, 활동, 특성 간에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여성적 직업, 활동, 특성 간에, 남성적 직업, 활동, 특성 간에 의미 있는 상관 형태를 보였다. 여대생 집단에서는 거의 이런 상관 형태만이 나타났는데, 특히 남성적 직업, 활동, 특성 간에 상관이 높았다.

타인에 대한 태도와 자기 승인과의 상관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의미 있는 상관이 별로 없었다. 평등적 태도와 남성적 직업, 활동, 특성에 대한 자기 승인과 거의 관계가 없었다. 평등적 태도와 여성적 직업, 활동,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몇 개의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났다. 여성적 활동이나 남성적 직업에 평등한 태도를 보이는 남학생은 여성적 활동에 대한 승인이 높았다.

표 2. 남학생과 공학여대생의 하위척도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여성적 직업-태도		.66***	.46***	.73***	.68***	.50***						
2.여성적 활동-태도	.68***		.48***	.57***	.72***	.53***						
3.여성적 특성-태도	.51***	.53***		.41***	.48***	.74***						
4.남성적 직업-태도	.71***	.53***	.41***		.70***	.51***						
5.남성적 활동-태도	.70***	.68***	.50***	.68***								
6.남성적 특성-태도	.51***	.54***	.77***	.44***	.55***							
7.여성적 직업-자신	-.17**	-.12*		-.21***	-.18***							
8.여성적 활동-자신				-.15**			.31***		.24***	.32***	.34***	.22**
9.여성적 특성-자신			-.16**		-.13*	-.16**	.26***	.18**				
10.남성적 직업-자신				.17**	.17***		.21***	.14*			.56***	.44***
11.남성적 활동-자신				.19***	.29***				-.14*	.53***		.44***
12.남성적 특성-자신									.26***	.29***	.26***	

주. 대각선 위는 남학생, 아래는 공학여대생.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여대생의 하위척도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여성적 직업-태도												
2.여성적 활동-태도	.77***											
3.여성적 특성-태도	.51***	.59***										
4.남성적 직업-태도	.75***	.66***	.45***									
5.남성적 활동-태도	.73***	.77***	.52***	.76***								
6.남성적 특성-태도	.48***	.62***	.74***	.46***	.56***							
7.여성적 직업-자신		-.23***			-.18*	-.24**						
8.여성적 활동-자신							.34***					
9.여성적 특성-자신			-.20*				.19*	.20*				
10.남성적 직업-자신							.22***					
11.남성적 활동-자신				.25**	.27**				.42***			
12.남성적 특성-자신									.43***	.37***		

* $p < .05$, ** $p < .01$, *** $p < .001$

공학여대생의 경우는 남학생보다 의미 있는 상관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부적 상관이 더 많았다. 남성적 직업과 활동에서 보다 평등적 태도를 보인 공학여대생은 남성적 직업과 활동에 대한 자기 승인이 높았다. 반면 남성적 직업, 활동, 혹은 특성에서 평등적 태도를 보인 공학여대생은 여성적 직업, 활동, 혹은 특성에서 자기 승인이 낮았다.

여대생의 경우 남성적 직업과 특성에서 평등적 태도를 보인 여대생은 여성적 직업에 대한 자기 승인이 낮았다. 여성적 활동에 대해 평등적 태도를 보인 여대생은 여성적 직업에 대한 자기 승인이 낮고, 여성적 특성에 대한 평등적 태도를 보이면 여성적 특성에 대한 자기 승인이 낮았다. 남성적 직업과 활동에 대한 평등적 태도를 보이면 남성적 활동에 대한 자기 승인이 높았다.

요인 분석

Liben 등의 연구 결과와 같이 대학생의 성도식이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Liben 등의 연구에서 성도식의 요인은 타인에 대한 성 태도, 남성적 자기 승인, 여성적 자기 승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을 남학생, 공학여대생, 여대생 따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세 집단에서 모두 3개의 요인이 그대로 나타났다. 표 4와 표 5에서 영역과 문항 유형에 상관없이 태도의 하위 척도 6개가 모두 요인1로, 자신에 대한 척도에서 세 영역의 남성형 척도 3개가 요인2로, 역시 세 영역의 여성형 척도 3개가 요인3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에서 각 요인에 로딩된 하위 척도의 값들이 조금씩

표 4. 남학생의 요인 분석

	요인1 (성 고정관념)	요인2 (남성적 자기 승인)	요인3 (여성적 자기 승인)
남성적 활동-태도	.863	-.012	-.123
여성적 직업-태도	.844	-.024	-.027
여성적 활동-태도	.822	.089	.039
남성적 직업-태도	.813	.019	.023
남성적 특성-태도	.768	-.168	.072
여성적 특성-태도	.710	-.090	.133
남성적 특성-자신	.002	.791	-.147
남성적 직업-자신	-.075	.789	.273
남성적 활동-자신	-.111	.758	.193
여성적 특성-자신	-.217	-.218	.696
여성적 활동-자신	.196	.372	.692
여성적 직업-자신	.144	.246	.647

표 5. 공학여대생의 요인 분석

	요인1 (성 고정관념)	요인2 (남성적 자기 승인)	요인3 (여성적 자기 승인)
여성적 직업-태도	.836	.095	-.140
여성적 활동-태도	.824	.039	.029
남성적 활동-태도	.818	.252	-.160
남성적 특성-태도	.805	-.054	.017
여성적 특성-태도	.786	-.107	.022
남성적 직업-태도	.730	.214	-.247
남성적 활동-자신	.078	.833	-.132
남성적 직업-자신	.041	.812	.100
남성적 특성-자신	.063	.546	.261
여성적 직업-자신	-.121	.111	.707
여성적 활동-자신	-.017	.229	.689
여성적 특성-자신	-.068	-.120	.653

다르지만 3개의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척도들은 같았다.

회귀 분석

대학생의 성 태도와 자기 성에 대한 승인, 반대 성에 대한 승인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점수를 각각 산출했다. 성 태도 척도에서 세 영역에 걸쳐 ‘남녀 모두’라는 반응의 평균 비율을 계산하였다. 자기 척도에서 세 영역에 걸쳐 남성형 문항에 대한 반응을 평균하고, 역시 여성형 문항에 대한 반응을 평균하여 따로 점수를 산출하였다.

태도-자기 통로를 시험하기 위해 평등적 태도가 자기 승인 정도를 예측하는지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성 태도는 자기 승인 정도를 예측하지 못했다. 반대 방향도 가능하기에 자기 승인 정도가 평등적 성 태도를 예측하는지 회귀 분석을 하였지만 역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공학여대생의 경우는 두 통로가 다 의미 있게 나타났지만 설명하는 변량이 적어 따로 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공학여대생의 평등적 태도는 높은 남성적 자기 승인을, 낮은 여성적 자기 승인을 예측하였다, $R^2 = .07$, $F(2, 289) = 10.74$, $p < .001$. 또한 공학여대생의 자기 승인 두 요인도 평등적 태도를 예측하였다. 남성적 자기 승인이 높고, $R^2 = .03$, $F(1, 290) = 7.66$, $p < .01$, 여성적 자기 승인이 낮음, $R^2 = .03$, $F(1, 290) = 9.86$, $p < .01$, 공학여대생은 보다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여대생도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이 여성적 자기 승인을 예측하였다. 평등적 태도를 보이는 여대생은 여성적 자기 승인이 낮았다, $R^2 = .03$, $F(1, 123) = 4.03$, $p < .05$.

논 의

지난 20년 동안 성 도식을 이루는 요인인 한 개나 두 개가 아니라 다중요인이라는 인식이 커졌다(Deaux, 1999; Huston, 1983; Ruble & Martin, 1998; Spence, 1993; Spence & Sharon, 1996). 다만 성 도식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냐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측정치와 연구에 어떤 요인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성 도식의 새로운 측정 방법을 시도한 Liben과 Bigler(2002)는 성 도식의 다차원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남성성-여성성, 특성-활동-직업, 그리고 태도-선호도-지각의 차원을 포함한 자신과 타인의 성 전형화에 대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Liben 등의 설문지를 우리나라에 맞도록 예비검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대학생에게 실시하였다.

대학생 집단간의 성 전형화 차이

타인에 대한 성 태도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Liben 등의 연구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평등적 태도를 보였지만, 여학생만 남성형 문항보다 여성형 문항에서 평등적 태도를 보였고 남학생은 문항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남성형 문항보다 여성형 문항에서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남성형 문항의 경우 세 영역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여성형 문항의 경우 활동과 직업 영역에서 공학여대생, 여대생, 남학생 순으로 평등적 태도를 보

었다. 특성 영역에서는 공학여대생이 남학생보다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여학생이 모든 영역과 문항 유형에서 남학생보다 비전형화된 태도를 보인다고 하겠다.

자신에 대한 성 전형화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자기 승인을 보였다. 문항 유형으로 보면 남성형 문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승인을 보였고, 반대로 여성형 문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승인을 보였다. Liben 등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항 유형에 따른 남녀 차이가 직업, 활동, 특성 세 영역에서 모두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국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자신에 대해서는 성 전형화된 반응을 보였다. 남학생은 남성적 직업, 활동, 특성을 더 선호하고, 여학생은 여성적 직업, 활동, 특성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남학생은 타인에 대한 태도나 자신에 대한 지각이나 상당히 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학생은 타인에 대해서 여학생보다 성 고정관념적이고, 자신에 대해서도 보다 성 전형화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여학생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여학생 반응을 보면 타인에 대한 성 태도에서는 남학생보다 덜 고정관념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데, 자신을 지각할 때는 성 전형화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학생의 이런 이중적 반응 형태는 여학생이 처한 사회적 요구로 인한 갈등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하경, 서병숙, 1991)에서도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근대적인 성 역할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학생의 반 수 이상이 자녀를 큰 변수로 들었고 남학

생의 반 수 이상은 여성의 직업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장하경 등은 여성의 취업 시기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근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했지만, 이 결과에 대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남학생이 여성이 자녀를 가져도 계속 직업을 가져야 한다 했을 때 남학생의 근대적인 성 역할 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직장과 양육의 책임은 그대로 여성에게 남는다. 이런 현실적 문제에 근대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진 여학생도 취업과 자녀 양육의 문제에 오자 내면화된 전통적 여성의 역할에 따라 양육과 배우자 지원을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조혜자, 2001).

장하경 등의 연구가 90년대 초의 연구이고 그 사이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다. 점점 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또한 직업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의식은 많이 달라진 것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한 연구를 보면 여성의 갈등은 더욱 높아가는 것 같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성 역할 정체감 연구(최임숙, 2004)에서 여자 중학생 39%, 여자 고등학생 47%, 여자 대학생 63.9%가 여성형 유형을 보여, 성 역할 정체감이 더욱 성 전형화되어 간다고 하였다. 더욱이 대학생의 경우 여성형 유형을 보였던 여학생의 77.4%가 1년 후 성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최임숙은 사회 분위기가 겉으로 여성의 남성적 역할 수행을 격려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성 전형화된 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여학생은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분명 여성은 남성보다 자신의 성 역할 발달에 보다 능동적이다. 여성은 성취 지향적 사회에서 여성성은 감소하고 남성성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유가호, 1994). 여학생이 사회의 고정관념에 반대되는 신념과 남성 중심의 사회를 반영한 성 역할 정체감 간의 갈등으로 오히려 미분화 유형이 많다고 한다(박영숙, 김영임, 박연환, 1998). 본 연구에서도 자신의 성 전형화를 측정하는 척도에서 특성 하위척도만 가지고 성 유형을 시험적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여대생 집단에서 미분화 유형(35.9%)이 가장 많았지만, 공학여대생 집단에서는 여성형 유형(33.5%)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조차 두 여학생 집단의 성 유형 분포가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여성의 성 전형화 과정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다(방희정, 1996). 사회에서 성 고정관념이나 성차별 같은 것을 겉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성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성별이 강조되는 집단이고 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처방받은 집단이다(조혜자, 2001). 결국 여성은 성 고정관념에 따라 성 전형화를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는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조혜자, 방희정, 2003).

성 도식의 구성 요인

타인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성 전형화에서 상관관계를 보면, 타인에 대한 태도에서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모두 하위척도들 간에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Liben 등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학생은 여러 영역에 걸쳐 성 전형화 혹은 비전형화된 태도를 갖는

다. 태도들의 하위척도들 간의 높은 상관은 그대로 요인 분석에서 한 개의 요인을 구성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성 태도가 하나의 요인을 구성한다는 결과는 Martin과 Halverson(1981)의 설명처럼 하나의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내집단/외집단 도식을 형성했기 때문일 수 있다. 남성과 여성에게 적합한 행동, 특성, 대상에 대한 피상적이고 대략적인 정보를 담은 도식 말이다. 다만 개인에 따라 도식이 성 전형화가 많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타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전형화가 덜 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Spence와 Hahn(1997)의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Spence 등은 1972년부터 1992년에 걸쳐 Attitudes Toward Women Scale(AWS)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성 역할 태도를 측정하였다. AWS는 남성 대비 여성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는 것이다. 1972, 1976, 1980, 1992년에 수집한 남녀 대학생 자료를 가지고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성 역할 태도는 한 개의 요인으로 나왔다. 즉 다른 시간, 다른 성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한 성 역할 태도는 일관적으로 한 개의 요인을 구성하고 있었다.

자기 성 전형화를 묻는 설문에서는 태도처럼 전체적으로 일관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여성적 직업, 활동, 특성 간에, 남성적 직업, 활동, 특성 간에 의미 있는 상관이 나타났고, 남학생은 남성적 직업, 활동, 특성 간에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직업, 활동, 특성 영역에서 여학생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남학생은 남성성에 일관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대학생의 이런 상관 형태는 요인 분석에서

그대로 나타나 남학생이나 여학생 집단에서 모두 세 개의 동일한 요인들이 나왔다. 우선 성 태도를 측정하는 하위척도들이 한 개의 요인을 이루었다. 자기 성 전형화를 측정하는 하위척도들은 영역에 따라 나뉘지 않고 문항 유형에 따라 나뉘었다. 남성성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들이 하나의 요인, 여성성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들이 또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는 크게 타인과 자신에 관한 요인들이 분리되고, 자신에 대한 요인이 남성적 자기 승인, 여성적 자기 승인 두 요인으로 나뉘었다.

성 도식의 유연성

그렇다면 성 도식을 구성하는 주요한 두 요인인 자신과 타인 요인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 성 도식의 유연성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보다 유연한 태도의 개인은 반대 성의 직업, 활동, 특성 등에 대한 높은 선호 내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Liben & Bigler, 2002; Signorella, 1999). 혹은 반대로 평등한 태도의 개인은 자기 성과 관련된 특성 등에 대한 승인이 낮을 수 있다고 한다(Ruble & Martin, 2002).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Bem의 척도를 사용하여 성 유형을 나눈 연구를 보면, 남성형 유형의 여학생과 여성형 유형의 남학생이 모두 다른 성 유형 집단에 비해 낮은 고정 관념을 보였다. 즉 성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자신의 전통적인 성 유형과 반대되는 속성을 보다 인정한다는 것이다(유가효, 1994).

본 연구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 전형화의 상관관계를 보면 여학생 집단에서 성 도식의 유연성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여학생 집단은 전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성 전형화에

서 보다 여성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여학생 집단 내에서 유연한 성 태도를 보이는 여학생은 성 도식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학여대생은 남성적 직업과 활동에서 보다 평등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남성적 직업과 활동에 대해 높은 승인을 보였다. 반면 남성적 직업, 활동 혹은 특성에서 보다 평등적 태도를 보이는 공학여대생은 여성적 직업, 활동, 혹은 특성에서 자기 승인이 낮았다.

높은 평등적 태도와 여성적 직업, 활동, 특성에 대한 낮은 자기 승인의 관계는 여대생 집단의 경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적 직업과 특성에서 평등적 태도를 보이는 여대생은 여성적 직업에 대한 자기 승인이 낮았다. 여성적 활동에 대해 평등적 태도를 보이는 여대생은 여성적 직업에 대한 자기 승인이 낮고, 여성적 특성에 대한 평등적 태도를 보이면 여성적 특성에 대한 자기 승인이 낮았다.

대학생의 이런 반응 형태는 요인 분석에서 나온 요인을 가지고 돌린 회귀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회귀식이 설명하는 변량이 적지만, 공학여대생의 경우 평등적 태도는 높은 남성적 자기 승인을, 낮은 여성적 자기 승인을 예측하였다. 또한 남성적 자기 승인이 높고, 여성적 자기 승인이 낮은 공학여대생은 보다 평등적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남학생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Liben 등의 연구에서는 평등적 태도를 보이는 남학생은 남성적 자기 승인이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평등적 태도를 보이는 여대생은 여성적 자기 승인이 낮았다.

여학생들의 같은 성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의 낮은 자기 승인과 평등적 태도의 관계는 자신의 성에 따라 행동하려는 동기가 감소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Martin과 Halverson (1981)은 성장과 함께 성 도식의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고정관념화된 내집단/외집단의 구별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평가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여학생은 평등적 태도를 보일수록 자신의 성에 따라 행동하려는 동기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사회에서 고정관념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하는 직업, 활동, 특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여성만의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중 평등적 성 태도를 가진 여학생은 여성적 영역에서 흥미를 잃어버린 듯 보인다. 여학생이 여성적 영역에서 흥미를 잃었다고 해서 대신 남성적 영역에서 흥미를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다. 그에 반해 매일같이 남학생과 협력하거나 경쟁하며 생활해야 하는 공학여대생 중 평등적 성 태도를 가진 여학생은 여성적 영역에서 따라하려는 동기는 감소하고 사회에서 높게 평가하는 남성적 직업, 활동, 특성을 따라 행동하려는 욕구는 강해지는 것 같다. 공학여대생 집단에서 이런 욕구가 강하다면 성 고정관념을 많이 없애려고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감추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 고정관념이 보다 은밀하게 암묵적인 형태로 여전히 작동할 수 있다(조혜자, 방희정, 2003). 본 연구에서 성 도식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여학생의 성 태도가 밖으로 나타나는 수준에서만 아니라 암묵적인 수준에서도 나타나는지 앞으로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타인에 대한 성 태도와 자신의 성 전형화 도식은 분명히 구별된다. 성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타인 도식은 하나의 전체적 요인을 구성하는 반면, 자신의 성 전형화에 대한 도식은 남성성과 여성성과 관련

된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성 전형화의 관계를 보면 보다 유연한 성 태도를 보이는 대학생은 반대성의 직업, 활동, 특성을 보다 선호하고 있다. 이런 성 도식의 유연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학생 집단은 전체적으로 타인에 대해서는 보다 평등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성 전형화 반응을 보인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성 전형화 과정에서 나타내는 모습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다.

남학생은 타인에 대한 태도에서 여학생보다 고정관념적이고, 자신에 대한 지각에서도 성 전형화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학생 집단에서 성 도식의 유연성의 증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두 척도에서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남학생의 성 전형화된 반응 형태와 관련 있는 것 같다. 또한 공학여대생 집단에 비해 남학생 집단에서 두 척도 간에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이유는 타인에 대한 평가와 자기 지각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성 도식의 구성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한다면 성 도식의 복잡한 구조를 좀더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신과 타인 요인의 관계를 기술하는 두 개의 동료(Liben & Bigler, 2002)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주며 발달하는지 연구한다면 성 도식의 구성적 과정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혜래 (2003).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성 역할 정체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혜옥 (2000). 성 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고찰. *서라벌대학 논문집*, 18, 205-222.
- 박영숙, 김영임, 박연환 (1998).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성 역할 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에 대한 비교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1(1), 51-62.
- 방희정 (1996). 성 고정관념: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실체. 김태련, 방희정, 이선자, 조성원, 조숙자, 조혜자 (저), *여성심리* (pp. 170-211).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유가효 (1994).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 역할 발달에 관한 연구-성 고정관념, 성 역할 이데올로기, 성 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15(1), 127-144.
- 이승훈 (1999). 미디어 교육의 효과 연구: 성 역할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하경, 서병숙 (1991). 대학생의 성 역할 태도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11(1), 117-133.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 조혜자 (2001). 성 고정관념: 왜 끈질긴가?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107-125.
- 조혜자, 방희정 (2003). 여성의 명시적 암묵적 자아해석에 미치는 성 고정관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101-122.
- 주은희 (2003). 무용전공 여대생의 성 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탁진국 (1995). 한국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 성별, 성 역할 유형 및 문화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8(1), 161-174.
- 최미이 (2000). 직장 여성의 성 역할 정체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영 (2001). 상담자 성 고정관념이 내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임숙 (2004). 중·고·대학생의 성 역할 정체감 발달과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213-232.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m, S. L. (1981). Gender schema theory: A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354-364.
- Biernat, M., & Kobrynowicz, D. (1999). A shifting standards perspective on the complexity of gender stereotypes and gender stereotyping. In W. B. Swann, Jr., J. H. Langlois, & L. A. Gilbert(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 The gender science of Janet Taylor Spence* (pp. 75-10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eaux, K. (1999). An overview of research on gender: Four themes from 3 decades. In W. B. Swann, Jr., J. H. Langlois, & L. A. Gilbert(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 The gender science of Janet Taylor Spence* (pp. 11-3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rper, M., & Schoeman, W. J. (2003). Influences of gender as a basic-level category in person perception on the gender belief system. *Sex Roles*, 49, 517-526.

- Hoffman, R. M., & Borders, L. D. (2001). Twenty-five years after the Bem Sex-Role Inventory: A reassessment and new issues regarding classification variability. *Measurement & Evaluation in Counselling & Development*, 34, 39-55.
- Huston, A. C. (1983). Sex-typing. In P. H. Mussen (Series Ed.) &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3rd ed., pp. 387-467). New York: Wiley.
- Katz, P. A., & Ksanskak, K. R. (1994). Developmental aspects of gender role flexibility and traditionality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 272-282.
- Lenney, E. (1991). Sex roles: The measurement of masculinity, femininity, and androgyny.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pp. 573-660). San Diego: Academic Press Inc.
- Liben, L. S., & Bigler, R. S. (2002). The developmental course of gender differentiation: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evaluating constructs and pathway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7(2, Serial No. 269), 1-147.
- Martin, C. L., & Halverson, C. F. (1981). A schematic processing model of sex typing and stereotyping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1119-1134.
- Martin, C. L. (199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gender effects and gender concepts. In W. B. Swann, Jr., J. H. Langlois, & L. A. Gilbert (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 The gender science of Janet Taylor Spence* (pp. 45-7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uble, D. N., & Martin, C. L. (1998). Gender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993-1016). New York: Wiley.
- Ruble, D. N., & Martin, C. L. (2002).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evaluating the developmental course of gender differentiation: Compliments, queries, and quandari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7(2, Serial No. 269), 148-166.
- Signorella, M. L., Bigler, R. S., & Liben, L. S. (1993).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hildren's gender schemata: A meta-analytic review. *Developmental Review*, 13, 147-183.
- Signorella, M. L. (1999). Multidimensionality of gender schema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gender-related characteristics. In W. B. Swann, Jr., J. H. Langlois, & L. A. Gilbert(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 The gender science of Janet Taylor Spence*(pp. 107-12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2).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n objective instrument to measure attitudes toward the rights and roles of women in contemporary society. *JSAS Catalog of Selected*

- Documents in Psychology*, 2, 66-67.
- Spence, J. T. (1993). Gender-related traits and gender ideology: Evidence for a multifactori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24-635.
- Spence, J. T., & Sharon, K. (1996). Children's gender-related self-perceptions, activity preferences, and occupational stereotypes: A test of three models of gender constructs. *Sex Roles*, 35, 659-692.
- Spence, J. T., & Hahn, E. G. (1997).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nd attitude change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4.
- Spence, J. T., & Buckner, C. E. (2000). Instrumental and expressive traits, trait stereotypes, and sexist attitud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 44-62.

1 차원고접수 : 2005. 10. 04

수정원고접수 : 2005. 11. 21

최종게재결정 : 2005. 12. 02

K C I

Gender Stereotypes and Gender Typing in College Students

Haeyoung Yang

Kyungmi Kim

Yeungnam University

The study was to identify gender attitudes toward others, gender typing of self, and the relations between gender typing of others and self in 582 college students, which were 165 male students and 292 female students of colleges, and 125 female students of a college for women. The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assess gender attitudes toward others and the self perception in three domains: occupations, activities, and traits. Female students had more egalitarian gender attitudes than male students across domains. In gender typing of self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showed gender-typed self-endorsement. Examin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gender typing of others and self showed that the flexibility of gender schema appeared among female students. Those female students who had more egalitarian gender attitudes toward masculine occupations and activities showed greater endorsement of masculine items for self. Those female students who had more egalitarian gender attitudes toward masculine occupations, activities, or traits showed less endorsement of feminine items for self. Factor analysis of the items of others and self measures revealed the three meaningful factors, which were gender attitudes, feminine self, and masculine self. Although the factor loadings varied slightly in the three groups of college students, the three factors were identical for the three groups.

Key words : gender typing, gender stereotypes, gender roles, gender schema